

순천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박차

옛 승주군청 일원 현장 점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본격화
2027년 지식센터·공장 준공

순천시가 옛 승주군청 부지에 추진 중인 그린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노관규 시장은 최근 옛 승주군청 일원에 조성될 그린바이오산업 전진기지 현장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전남형 균형발전 300 사업을 연계해, 해당 부지를 그린바이오 전략 품목군 산업 생태계 조성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바이오·건축·농업 등 관련 부서가 함께 모여 20년간 활용도가 없었던 옛 승주군청 청사 철거를 논의했다. 또 건축물 안전 우려로 2022년부터 사용이 중지된 승주다목적회관의 철거 및 부지 활용 방안 등도 논의했다.

현장을 살핀 노 시장은 “노후 건축물이 부지 중심에 있어 공장 조성이나 기업 유치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조속한 철거를 통해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부터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가운데)이 최근 옛 승주군청 일원에 조성될 그린바이오산업 전진기지 부지를 찾아 현장 점검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했다.

순천시는 해당부지에 620억원을 투입해 식품·화장품·팻푸드 등 전략 품목군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AI 기반 자율재배 스마트팜에서 우주·미래식품 등의 원료 농작물을 생산하는 등 산업간 연계성을 높이고,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순천시는 승주다목적회관의 철거를 연내 마

무리하고, 옛 승주군청 부지의 건축물은 철거를 포함한 사업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해 2027년까지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시설을 준공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단순한 건물 철거가 아닌 지역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출발점이다”며 “그린 바이오 산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태 경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곡성군, 농촌 왕진버스 운영 취약층 의료서비스 제공

곡성읍·오곡면 등서 400명 진료
한방진료·구강검사·시력검사 등

곡성군과 곡성농협은 최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곡성읍 문화체육관에서 진행됐으며, 곡성읍·오곡면·삼기면·고달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업인 400여명이 진료를 받았다.

이날 진료에는 광주원광대한방병원, 대한의료봉사회, 광주 윤길중 센터럽안과 등 3개 기관이 참여해 한방진료, 구강검사, 시력검사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한방진료는 침 시술, 파스 및 제재한약 처방, 오십견 등 근골격계 질환 진료, 영양제 처방 등으로 구성됐으며, 광주원광대 한방병원 소속의 료진 15명이 참여했다.

대한의료봉사회는 구강관리 검사와 구내 사 진촬영, 치면세균막 및 치석 진단, 치과 치료,



곡성군과 곡성농협은 최근 곡성읍 문화체육관에서 지역 어르신 400명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 곡성군 제공

구강보건 교육 등을 진행했고, 센터럽안과는 녹내장 등 눈 건강검진과 검안, 돋보기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호응을 얻었다.

곡성군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농촌의 현실에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번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류성 기자

구례군, 100억 투입 섬진강 힐링생태공원 완공

구례군이 지난 2022년 12월부터 100억원을 들여 조성한 섬진강 힐링 생태공원이 완공됐다.

14일 구례군에 따르면 섬진강힐링생태공원은 전체 면적 3만8,866㎡ 규모로 조성됐다. 섬진강 자전거중주길을 대표하는 휴게 거점 쉼터 제공과 더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숲 모험 놀이시설, 순환 산책로 조성 등을 갖췄다.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인근의 공원 진출입로를 통해 출입할 수 있다. 공원 입구에는 주차공간이 마련된 공원 주차장과 섬진강 자전거길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쉼터가 배치됐다.

생태순환숲은 자전거 이용객과 도보 방문객이 자연 속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

다. 포켓 쉼터 개념의 ‘두바퀴 쉼터’가 이용자들의 휴식을 돕는다.

이외에도 자전거 교육장과 지형의 높이차를 활용한 공간 ‘히든벙커’, 여행자를 위한 ‘여행자 정원’이 있다. 공원의 마지막 구역에는 모험 체험공간인 ‘섬진강모험숲’과 건강을 위한 ‘건강 쉼터’가 조성됐다.

구례군은 힐링생태공원이 섬진강 대숲길과 연계한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된 만큼 이용자에게는 더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거리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군민을 위한 휴식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자연이 살아 숨쉬는 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례=손석봉 기자



담양군이 13일 군청 명양정실에서 ‘제2기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제2기 혁신 주니어보드’ 출범

담양군은 최근 군청 명양정실에서 ‘제2기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철원 담양군수와 주니어보드 2기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 1기 활동 결과 공유, 2기 운영 방향 설명, 팀별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혁신 주니어보드’는 근무 경력 7년 이하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내부 혁신 그룹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부서 간 협업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한 아이디어를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2기는 총 8개 팀, 4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아름답다 담양 만들기’를 주제로 조정·야경·환경 등 다양한 생활행정 분야에서 팀별 연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 제안은 내부 심사를 거쳐 실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담양=정일남 기자

고흥군, 민원 신속처리로 만족도 높아진다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 51.82%

고흥군의 민원처리가 전년보다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흥군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 분석한 결과 법정 처리기한 1일 이상 유기한 민원 9만5,831건 집계됐다.

민원처리기한 단축률은 51.82%로 전년(48.70%) 대비 3.12%p 향상됐다.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99.69%로 전년(98.48%)보다

1.21%p 상승하며, 민원서비스 신뢰성과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흥군은 민원행정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매월 민원처리 현황 점검 및 전 부서 공유 △민원 만족도 전화조사 및 군민참여 민원제출 평가 △원스톱 복합민원상담 사전 예약제 운영 △민원후견인제 및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 현장 코칭 △친절서비스 우수 부서 평가 및 직원 민원단축마일리지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진중언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장흥 덕촌마을, 가정의 달 맞아 경로잔치

장흥군 덕촌마을은 최근 가정의 달을 맞아 경로잔치 및 팔순·칠순·회갑 잔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덕촌마을회와 노인회가 주관한 행사에는 어르신 100여명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했다. 경로잔치는 마을 어르신을 공경하고 세대 간 정을 나누는 마을 전통 행사로, 5년째 열리고 있다. 올해 잔치에서는 팔순 2명, 칠순 3명, 회갑 4명의 어르신들에게 주민들이 준비한 기념 선물을 전달했다.

덕촌마을 김영택 이장은 “경로잔치는 단순한 행사라기보다 마을 공동체의 정과 효 문화를 이어가는 중요한 시간이다”며 “앞으로도 전통을 오래도록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보성군 여성단체협의회, 햇차 수확 일손 돕기

보성군여성단체협의회가 보향다원에서 찻잎 수확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차 재배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들은 일손이 절실한 현장에서 찻잎을 수확하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에 힘을 보탰다.

김미숙 회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 재배 농가에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로 협력하며 어려움을 나누고 행복함을 함께 누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백종두 기자



대영약품, 담양군에 파스 2640개 기탁

㈜대영약품이 지역 내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담양군에 400만원 상당의 파스 2,640개를 기탁했다.

나주시에 본사를 둔 대영약품은 양약·한약류 및 의료용품 도매업체로, 담양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종선 대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은 정성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기탁해 주신 물품은 봉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